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2. 15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기획정책과
담당	과장 구영미, 기획팀장 단은송, 담당 한창영(032-453-7112)

투자유치·소통·현장 방문 통해 가시적 성과 거뒀다

김진용 인천경제청장, 15일로 취임 1백일 맞아

국내외 발로 뛰며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등 성과…현안 해결에도 적극 노력

- 지난 9월7일 취임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5일로 취임 1백일을 맞았다.
- 지난 5대에 이어 7대 청장으로 재임한 김청장은 1백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통해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초석을 쌓는 한편 발빠른 현장방문과 시민 소통을 바탕으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.
- 무엇보다 송도 6·8공구 개발 사업 및 국제업무지구 사업, 청라 시티타워, 영종 미단시티 및 국제학교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원칙과 중심을 잡고 풀어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.
- 김청장은 지난 9월 취임식에서 “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청장으로 다시 취임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”며,

“앞으로 시민들과 IFEZ의 미래를 생각하며 IFEZ가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힌 바 있다.

- 김청장은 지난 달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, 유럽한인총연합회와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과 한국 문화·교역의 거점이 될 ‘유럽한인문화타운’ 조성을 본격화했고 유럽 한인들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선언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.
- 또 테르메 그룹과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, IFEZ 내 유럽형 글로벌 힐링 스파&리조트를 유치한 것을 비롯 창업 200여년에 가까운 독일 수제 맥주 제조 회사 및 아이오티 블록체인 스타트업과의 연계 협업 등 첫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당초 기대를 뛰어 넘는 많은 성과를 거뒀다.
- 이와함께 김청장은 취임 후 추석 연휴기간이 끝난 뒤 곧바로 청라시티타워 등 청라국제도시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등 현장을 강화하며 발빠르게 움직였다.
- 특히 그동안 송도국제도시에서만 개최됐던 간부회의를 영종과 청라로 확대, 회의 전·후에 주요 현장 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적극 소통하고 있다.
- 실제로 그는 이달 초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한 개발 계획 변경(안)을 논의하는 ‘경제자유구역위원회’에 직접 참석, 사업의 중요성 등을 밝히며 심의·의결에 힘을 쏟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지연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사업 정상화를 위한 테스크포스(TF) 회의를 이끌어내며 주도하고 있다.
- 또 경기 시흥시를 찾아 송도의 전력난 해결을 위한 한전 지중송전선로 문제

와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과 의견을 나누고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. 이와함께 한전 지중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도 시흥시가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한전 굴착 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로 뛰며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- 이와관련 김청장은 “균형·창조·소통은 민선 8기 시정의 3대 키워드이고 주민의 의견은 민심의 소재(所在)인 동시에 아이디어와 제안의 보고(寶庫)”라며 활발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.
- 김청장은 “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로 뛰면서 청라시티타워, 송도 6·8공구 등 현안 해결에 노력, IFEZ를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